

# 충성대신문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제 **208**호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창설초기 학교 본관  
창설당시~'75.9.9

양지관(前 학교본부)  
'75.9.9~'97.4.25

前 학교본청  
'97.4.25~'24.7.12

現 학교본부  
'24.7.12~

## 2024 New start!

학교 **新본청** 9월 조경공사완료예정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이용환 / 편집인 임문택 / 주간 최재호 / 부주간 권지민  
편집담당 강수정 / 편집국장생도 이주형 / 충성대신문사 (054)330-3605 [www.kaay.mil.kr](http://www.kaay.mil.kr)

208호 사진제공 및 편집: 병장 오세준, 상병 임은혁, 채호준



# 학교 신 본청 입주



1층에는 사무공간 및 교육상황실, 오염안장군실(화상회의실), 박영하장군실(행사지원실)이 있으며 2층에는 학교 및 생도대 지휘부, 명예의 전당, 소세미나실이 있다. 3층에는 사무공간 및 다목적실 등이 있다.

2층 명예의 전당은 학교의 전통과 상징, 역사속 충성대인의 헌신과 명예 고양, 사관생도 명예에 대해 전시하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소세미나실은 약 70여명 수용가능한 공간으로써 각종 회의, 교육 등의 소요 발생 시 다른 건물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었다.

1층 여자휴게실, 3층 환복실이 위치해 직원들의 생활 편의를 높였다.

주무관 강수정

육군3사관학교 新본청 신축이 완료되어 7월 12일 입주 후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新본청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

까지 연면적 1753여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최대층고 18.2m)로 건립되었다. 학교 및 생도대 지휘부와 참모부의 사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건물에 흩어져

있던 참모부가 한 건물에서 업무 수행함으로써 조직 내 소통과 업무효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층발전기금 명예의 전당

##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다각적 노력

### 62기 정시/63기 예비생도 선발



▲ 생도선발 3차 시험(심층면접) 현장

학교는 지난 7월 25일부터 62기 정시 및 63기 예비생도를 선발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에 돌입하였다.

총 3차로 구성된 선발 과정은 1차 서류전형 [대학성적+수능성적 또는 대학성적+고교내신], 2차 선발고사 [영어, 간부 선발 도구를 활용한 지적능력 평가], 3차 적성 [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 3차 선발에서 특히 달라진 점은 지원자들의 편의 및 미응시자 최소화

를 위해 신체검사를 '대구병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군수도병원'·'국군홍천병원'·'국군대전병원'·'국군합평병원' 등 총 5곳에서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원자들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면접 역시 '수도권'·'대전/광주/강원권'·'경상권'으로 나누어, 지원자들의 연고지에서 2주간에 걸쳐,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예비일을 편성하여 미응시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학교의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에 비해 근소하기는 하지만, 향상된 지원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 남은 체력검정 시험도 입학관리실 인원들의 전화상담을 통해 미응시 인원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는 10월 11일에 63기 예비생도, 10월 25일에 62기 정시생도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학관리실장 중령 최재호



▲ 생도선발 3차 시험(심층면접) 현장

## 충성 리더십 교육

### 화랑도와 연계해 올바른 인·품성, 리더십, 군인정신 함양 교육



▲ 은해사에서 교육받는 생도들

학교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학년(61기) 생도들을 대상으로 충성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014년부터 팔공산 은해사와 손을 잡고 매년 1박 2일로 진행하고 있으며, 화랑도교육, 사찰예절 체험, 인성 교육, 생도 소통공감의 시간, 화랑 수련지 탐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령 한상미



▲ 은해사에서 단체사진 촬영중인 생도들



# 제29회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회의 특별상 수상

## 3학년(61기) 심재왕 생도, 한국유엔협회장상



▲ 특별상을 수상한 61기 심재왕생도(우측세 번째)

지난 7월 2일부터 5일까지 가천대학교에서 열린 제29회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회의에서 3학년(61기) 심재왕 생도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유엔(UN)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외교부의 후원으로 열린 이 대회는 대학생들이 실제 유엔총회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외교관처럼 각 위원회별로 국제사회 현안을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엔 창설 50주년이 되던 199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제29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 사이버공간 내 도전과 위협 ▶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 ▶ 기후변화와 국제안보 등을 의제로 전국 35개 대학 270여 명의 대학생들이 실력을 겨뤘다.

소령 권지민



▲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회의에 참석한 생도들과 지도교수진

# 생도 합동교육

## 육·해·공군 부대 및 방산업체 견학, 미래 전장 주도할 합동성 역량 강화



▲ 해군사관학교에서 생존수영 교육받는 생도들

학교는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생도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합동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관생도들이 해·공군사관학교와 육군2작전사령부, 육군종합정비창을 비롯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풍산, LG엑스원을 방문하였다.

해군 교육은 잠수함사 및 함정 견학과 IBS(고무보트) 훈련·생존수영 등 해양체육 활동 체험으로 이루어졌다.

공군 교육은 공군작전 강의, 인공위성 및 풍등 실험실 견학, 항의원 훈련센터 견학, 시뮬레이터 실습 등 견학 및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과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4학년(60기) 고병찬 생도는 “견학과 체험 위주 교육을 통해 해·공군의 특성을 이해하고 합동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대한민국 수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닌 만큼 타군을 존중하고 많은 바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장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소령 한상미



▲ IBS(고무보트) 훈련하는 생도들

# 생도, 日 간부후보생학교 방문

## 日 간부후보생 학교와 인적교류를 통한 관계 증진 도모

지난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학교장을 비롯한 주요직위자 및 4학년(60기) 생도 11명이 일본 간부후보생 학교를 방문했다.

학교는 2007년 일본 간부후보생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양국의 학교를 상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교

류해왔다. 환영 만찬회를 시작으로 일본 학교 견학, 스포츠 교류, 만남의 시간 등이 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류행사는 양국의 젊은이들 간에 친선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주무관 강수정



# 제78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우수상 수상

## 심리학과 4학년(60기)생도 5명, 포스터 발표 우수상

학교 심리학과팀(4학년(60기)생도 : 김원겸, 정운학, 김도혜, 오필승, 한도균, 지도교수 : 소령 김대은)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8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제78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간 심리의 고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저명한 연구자들의 강연 및 논문발표, 포스터 발표로 구성되었다.

포스터 발표 세션은 포스터 형식으로 각 팀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경진

대회였다. 이번 대회에는 육군3사관학교를 비롯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경북대 등 국내 우수대학 총 79팀이 참가하여 학문적으로 열띤 경쟁을 벌였다.

심리학과팀은 “확증편향이 리더십 의사결정에 미치는 뇌신경학적 기제 탐구”라는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진행했다. 지도교수인 김대은 소령은 “이번 포스터 발표는 심리학과 생도들이 리더십 의사결정에 대한 뇌신경학적 연구에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시도를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무관 강수정



▲ 연차학술대회에 참석한 심리학과생도들과 지도교수





독도에서 단체사진 촬영하는 생도들



해군 2함대사 천안함 기념관 앞에서 생도들

## 생도 국내·외 탐방 실시

국가·역사·안보관 확립 및 국제적 안목 확장을 위한 탐방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3·4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탐방을 실시했다. 예비장교로서 올바른 국가·역사·안보관을 확립하고 국제적 안목을 확장하기 위해 매년 국내·외 전사적 탐방을 실시하고 있다.

3학년(61기) 생도들은 백령도와 울릉도·독도 탐방을 실시했다. 백령도 탐방 간에는 해군 2함대사를 방문해 해군 작전에 대해 이해하고, 천안함과 참수리 357정 견학,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했다. 또한, 해병 6여단, 공군 방공부대 견학을 통해 합동작전체계에 대한 식견을 넓혔다.

울릉도·독도 탐방 간에는 독도에 입도해 국토 수호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해군 118조기경보전대 견학을 통해 확고한 안보관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4학년(60기) 생도들은 일본과 베트남의 강제징용 역사현장과 식민지 배지 견학, 호이안 청룡부대 주둔지 터 견학을 통해 항쟁의식을 고취하고, 조국 수호 결의를 다졌다. 생도들은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보며,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관생도 그리고 예비 장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독도를 찾은 3학년(61기) 이용이 생도는 “독도에 입도하는 순간 독도의 소중함과 우리 영토를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조국수호 의지가 높아

지는 것을 느꼈다.”며, “현재 사관생도로서 수행해야 할 과업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도들의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

소령 한상미

## ‘살신성인 표상’ 故 차성도 중위 54주기 추모제

육군3사관학교 1기 출신, 소대장 시절 수류탄 덮쳐 부하 구하고 장렬히 산화



생도대장 김민식 준장이 추모사업회 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울산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故 차성도 중위는 1970년 3사 1기로 임관해 육군 27사단 소대장으로 임무수행했다. 그해 5월 훈련 중 소대원이 놓친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부하들을 구하고 “나 외에 다친 사람은 없느냐?”라는 말을 남기고 산화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4학년 허강현 생도는 “위기의 순간 일말의 주저함 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부하들을 구하고 산화하신

살신성인의 표상, 故 차성도 중위 54주기 추모제가 지난 24일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렸다. 故 차성도 중위 추모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추모제에는 유가족과 3사교생도대장 김민식 준장, 생도 및 장병 50여 명, 박경중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故 차성도 중위 추모사업회 회장 및 회원, 울산보훈지청장, 울산시 부시장, 울산시의회 부의장,

선배님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소대장, 나보다 부하와 전우들을 먼저 생각하는 소대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생도대장 김민식 준장은 추모사에서 “사관생도들은 선배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국방을 이어 갈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살신성인의 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했던 선배님의 높으신 뜻과 발자취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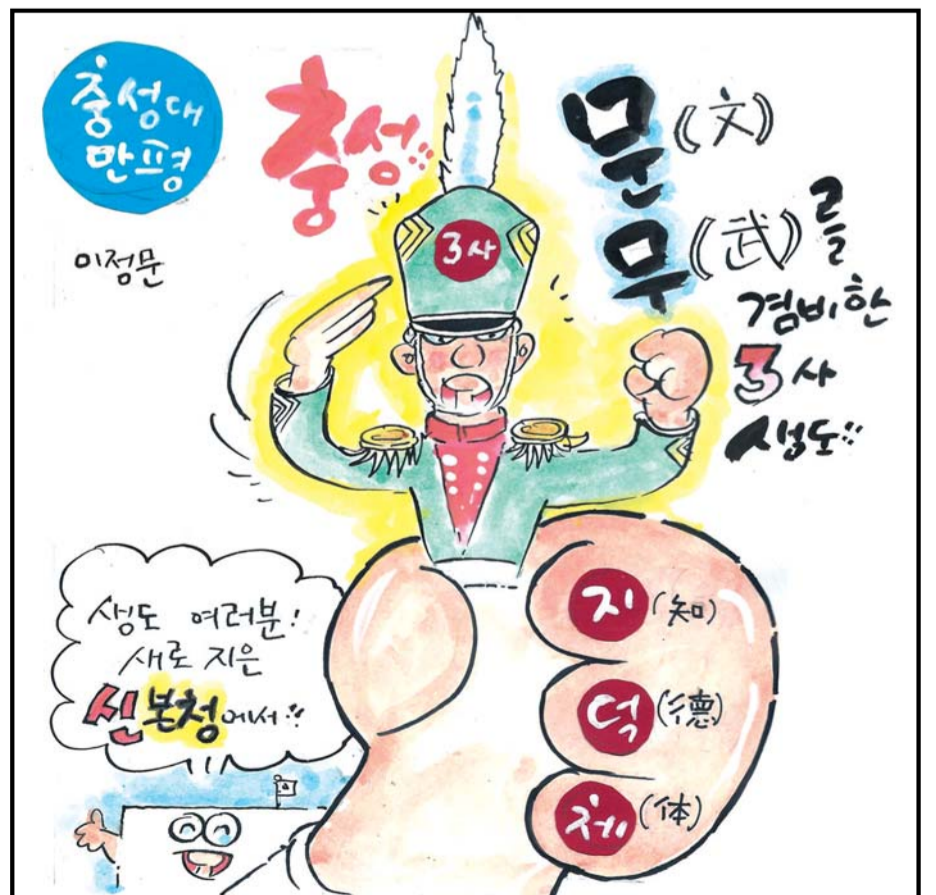
소령 한상미



분향하는 훈육관 김정훈 소령



경례하고 있는 생도들





# 생도대 대 나무 숲 이 글은 생도들의 실제 시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 아무래도 동기애

어느덧 61기 생도들이 학교에 입교한 지 6개월, 3학년 생도들이 첫 일반학을 마치고 직면한 군사학이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훈련 후기 중 모두가 하계군사훈련 때 동기간의 갈등이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핸드폰에선 폭염주의보 알람이 울리고 더운 여름 날씨에 계속 흐르는 땀으로 인해 별일도 아닌일에 지루 짜증이 난다. 짜증을 동기한테 옮기는 순간 모두에게 그 짜증이 옮겨간다.

하지만 이 짜증이 풀리는 날이 있다. 바로 체력 측정 날이다. 아무리 더워도 짜증 내지 않고 트랙에서 뛰는 동기들을 응원하고, 다뤘던 일도 미뤄둔 채 마지막까지 함께 뛰어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동기애인가?

## 📣 혼나기만 하는 소위

외박이나 휴가 중 친구들을 만나 밥을 먹든 카페를 가면 항상 군대 이야기를 하게 된다. 특히 병장 때 이야기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는 '폐급 소위' 이야기이다.

- A: 우리 소대장은 전투준비태세도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더라ㅋㅋㅋㅋ
- B: 우리 소대장도 맨날 중대장한테 병력관리 못 한다고 깨지고 부사관한테도 일을 못 한다고 혼나고 소위는 역시...
- A: 소대장은 항상 쫓아있고 얼타는게 당연하지!
- C: 나 임관하면 큰일 났네... 진짜로ㅋㅋ

친구들에게 들리는 군대 무용담에서 소대장은 항상 악역으로 등장하는 것 같다. 매일 혼나는 소대장 병장들에게 기싸움하는 소대장 등 소대장은 길들여야 하는 대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즐비하다 인터넷에서도 소대장에 대한 연관검색어로 '소대장 길들이기 가니올 정도다'

지덕체를 겸비한 소대장얘기는 언제 들을 수 있을까?

## 📣 생도들은 언제나 대기 중

군사학기는 이른 아침에 훈련을 나가고 점심을 먹은 후 두어 시간 훈련을 받고 복귀를 한다. 땀범벅이 되면 생활관에서 샤워하고 싶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일정 통제 연락 때문에 꼬질하게 앉아 연락대기를 한다.

급한 일이면 진작 공지했겠지라는 생각에 샤워하려 하면 그때 공지방에 킁킁이온다.

'XXX 교육을 위해 교양실로 Y시까지 착석 완료'

## 📣 생도병

생도 10명 중 9명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 그 이유는 갑작스러운 일정 공지와 긴급 전파로 신속한 연락 대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과 중은 당연하고 자는 순간에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잔다.

생도대의 아침은 스마트워치의 진동으로 시작한다. 'N시까지 소대 집합 장소로 집합'이라는 연락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나 휴가 중에도 습관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자게 되는데, 이때는 약간의 진동으로도 잠에서 깨버린다.

보행 중에도 손목에 약간의 진동만 느껴져도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보게 된다. 생도들도 이러한 직업병을 가진 채 휴가를 즐겼다고 한다^^

## 📣 휴가 끝!

짧고도 짧게 느껴지는 2주의 휴가가 지나고 우리 생도들은 다시 복귀했다 생도들 모두가 각자 뜻깊고 행복한 휴가를 보냈을까?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덥고 긴 것 같다. 말 그대로 밖에서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으로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런 날씨에 나가서 즐길 상황도 기운도 나지 않았을 것이다.

생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휴식 휴가에 목이 말라가는 것 같다. 그만큼 우리가 생도 생활을 목이 마르도록 열심히 했다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휴가가 하루라도 그럭저럭 흘러갔다면 아쉬움이 컸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2주와 휴가의 2주는 흘러가는 시간의 속도가 어쩔 이렇게 아슬하게 다를까? 하지만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복귀한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본분을 다할 준비가 되었다. 모두 일반학을 잘 준비하자!





# 생도, 교수의 세계를 탐방하다!

60기이 주형, 강준성, 61기이 예찬기자생도

## 권지민 교수

근대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데카르트는 모든 진리는 혼자서 발견할 수 없으며, 다양한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게 독서는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이였을지도 모른다.



“우리 생도들도 2주간의 휴가를 다녀왔다. 쉬를 통해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먼 훗날을 위해 독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항상 생도들의 눈높이에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권지민 교수님의 독서법과 더불어 교수가 아닌 인생 멘토로서의 조언도 살펴보고 남은 여름을 마무리해보기를 바란다.”

### Q 군사 학기가 끝나고 생도들에게 약간의 쉬(휴가)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생도들이 책을 통해 어떤 것을 배우면 좋을까요?

A 그 어느 때보다 무더웠던 24년의 여름에 군사훈련을 받은 생도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2달여의 시간 동안 육체적으로 강인해진 만큼 정신적으로도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는 책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책은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합니다. 힘든 시기에 책 속의 한 줄,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책은 군사훈련 동안 지쳤던 생도들의 심신에 위로를 제공하며 더욱더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벼운 독서는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기 때문에, 군사훈련 간 배웠던 전술 지식이 머릿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Q 교수님께서 평소 독서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A 사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 책을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을 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활하는 곳곳에 다른 종류의 책을 펴두고 생활합니다. 주로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하는 청운관 연구실 책상 한쪽에는 가볍게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인문학 책을 펴놓고, 진지하게 집중할 수 있는 회의용 책상에는 전문서적을 펴놓습니다. 지금은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를 다룬 최근 COI보고서가 펼쳐져 있네요(웃음). 집에서 제가 앉아있는 공간에는 책이 펴져 있습니다. 책을 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펴놓고 저를 그 책에 노출을 시키는 것이지요. 저는 평소 독서를 할 때 필사나 메모를 하지는 않습니다. 생도 시절 한두 권 해봤는데, 다시 읽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나면 아무리 감명 깊게 읽었다 하더라도 불과 몇 개월 뒤면 주인공 이름이나 내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전문서적은 더 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필사 등을 많이 하곤 하는데, 독서의 본질은 ‘암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읽고 느끼면, 그 순간 자신의 정신과 마음은 성장합니다. 특히 생도들에게 있어선 장교의 가장 필수적인 덕목인 비판적 사고력과 발표력까지 향상됩니다. 따라서 독서를 하는 순간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Q 생도들이 임관하기 전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 『귀족자』를 추천합니다. 많은 버전이 있는데, 생도들이 보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버전을 선택해서 읽으면 뭐든 다 좋습니다. 귀족자는 춘추전국시대 출사를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포부를 펼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원칙과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담은 책인 『귀족자』는 하나의 큰일을 이루어나가는 단계를 설명한 책으로 일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며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군 생활은 업무가 힘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되어야 하는 전장의 특성상 업무 자체가 일반 사회처럼 복잡하거나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군 생활의 힘들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상관과의 관계, 부사관과의 관계, 용사들과의 관계 등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하고 잘 대처할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귀족자』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 처세에 대한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도들이 임관하기 전에 꼭 접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네요.

### Q 교수님이 읽었던 책 중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있나요?

A 쇼펜하우어는 “오늘이라는 날이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것임을 항상 명시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현재를 의미로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현재 그 자체를 기분 좋게 받아들여 즐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생 전체를 구성하는 하루하루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날 새로운 것입니다. 현재의 가치를 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생도 시절부터 현재에 충실했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온 것이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생도들을 면담하다 보면, 우등별에 대한 욕심과 임관성적에 대한 욕심, 위탁 교육에 대한 욕심 등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너무 세부적으로 설정하지 말고, 하루하루에 집중하다 보면 언젠간 훨씬 더 잘되어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토익 800이상을 목표로 하게 되면 시험을 치고 토익 800이 안 되어 있을 때 쉽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현실에 충실하여 하루에 R/C 20문제 L/C 20문제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충실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러한 목표에 가까워져 있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 Q 독서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일까요?

A 생도들에게 독서를 강요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장 독서하기 좋은 시기는 생도 시절입니다. 학교의 도서관은 좋아도 너무 좋은 도서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책을 신청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주고, 다른 도서관에서 상호 대차 지원도 해줍니다. 무엇보다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을 많은 양의 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도서관이 리모델링 중입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생도들이 더욱더 책을 읽기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졸업하고 후회하지 말고 생도 시절의 여유를 마음껏 도서관에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했던 생도와 그렇지 않은 생도의 10년 뒤는 확연하게 다를 거라 강하게 확신합니다.



# 생도들의 휴가지 그곳을 알아보자!

누구든지 들으면 기분이 괜스레 좋아지는 말이 있다. 바로 휴가다. 생도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힘겹게 이겨낸 하계군사훈련을 끝내고 기다리던 휴가를 다녀왔다.

60기 강준성, 61기 이에 찬 기자생도

“

익숙하지 않지만 새로운 경험으로 견문을 높일 수 있는 해외에 가거나, 익숙하고 편안한 국내 여행을 갈 수도 있다. 또는 어느 곳보다 편안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에 머무르며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휴가를 보낼 수도 있다.

신문사에서는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생도들의 휴가지를 알아보았다.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생도들의 휴가지와 목적과 이유, 다른 생도들에게 추천하는 휴양지 등을 알아보자.

”

## 생도들은 휴가 간 어디에 있었으며 왜 갔을까?

신문사에서 147명의 생도를 대상으로 휴가를 다녀왔던 곳과 목적을 조사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147명 중 79명(54%)이 국내를 선택해 여행을 다녀왔다. 국외로는 49명(31%)의 생도들이 다녀왔으며 집에 있었던 생도들은 22명(15%)으로 조사됐다. 과반수의 생도들이 편안한 국내 여행을 다녀왔다. 이들 중 대다수가 제주도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어 60기 A생도는 여행을 가서 우연히 다른 생도를 만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생도들이 각자의 여행지로 갔던 이유에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대답이 112명(7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서 동기들과의 단결이라는 답이 18명(12%)이었고 가족여행이라는 항을 선택한 생도는 16명(11%)이었다. 해외여행을 갔던 B생도는 세상을 향한 자신의 견해와 견문 확장을 위해 여행을 떠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이번 휴가를 통해 털어낼 수 있어 자신에게는 ‘숨 고르기’를 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 해외를 갔다면 어느 지역으로 갔을까?

그렇다면 해외로 갔던 생도들은 어느 지역으로 갔을까? 아시아가 76명이었고 유럽이 43명, 아메리카 6명, 아프리카와 중동으로 여행을 간 생도가 소수 있었다. 특히하게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갔던 생도도 있었다. 생도들은 국외여행에서 비교적 가깝고 익숙한 아시아로 많이 떠났으며, 익숙하지는 않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확장될 유럽에도 많이 갔다. 일반적인 여행지와는 다른 아프리카와 중동을 여행한 생도도 있었다.

## 반면에 집에 있었던 생도들의 이유는?

반면에 해외나 국내 여행을 떠나지 않고 집에서 휴가를 보냈던 인원들의 답은 무엇이였을까? 자신들의 집이 편하고 좋다는 의견과 휴식을 위해 집에 있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외에 피곤하다는 답과 집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휴가를 집에서 보냈다고 답했다. 집에 있던 생도들은 그동안 너무나도 열심히 달려왔기에 바쁘게만 지나가던 일과를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휴식을 위해 집에서 휴가를 보냈다고 한다.

## 본인들의 여행에서 이용했던 교통수단은?

이번 여행에서 생도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 대부분의 생도들이 차량을 이용했고 해외를 갔던 생도들은 주로 비행기를 이용해 여행했으며 땅에서는 주로 기차와 자가용, 렌트카 등 복합적으로 사용하며 다채로운 여행이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답 중에 군용기라는 답이 있어 상당히 의외였으며, 그 누구보다 짜릿한 여행이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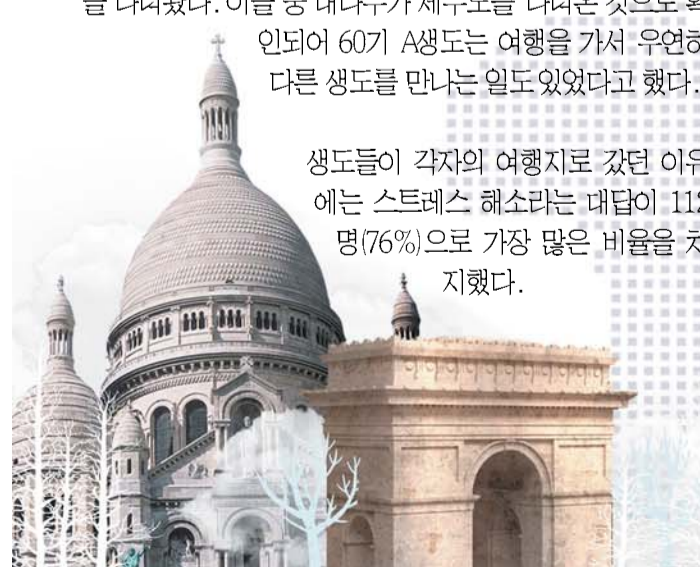
## 생도들이 주변 동기들이나 선·후배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는?

생도들이 다른 생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는 대부분 바다를 추천했다. 바다를 추천했던 대부분의 생도들이 강릉 등 동해안이나 부산, 통영 등 학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을 추천했다. 이밖에도 일본을 추천했던 생도들이 많아 일본에서의 소중한 추억이나 인상적인 기억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을 자주 간다고 했던 C생도는 주거형태나 배경이 한국 이랑 비슷하고 갔을 때 이질감이 들지 않고 낯설지 않다는 점이 좋았다고 답했다. 또한, 인스타그램 등 매체에서 눈으로 접했던 요리들을 실제로 먹을 수 있어서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행지를 추천한 이유는?

생도들은 입관 후에는 여행이 힘들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국내 여행을 추천했다. 국내에 인상적인 해변을 거닐면서 생도 생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기를 바라면서 추천했다. 동남아 등 여행지를 추천한 생도들은 날씨가 좋고 물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추천했다. 이렇게 해외를 추천하는 생도들은 해외 문화를 경험하고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경험 등을 위해 추천했다. 국내의 명소들을 추천한 생도들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이나 힐링이 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추천했다.

이렇게 생도들의 휴가지와 다른 생도들에게 추천하는 휴가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양한 환경에서 각자의 선택으로 떠나는 이들의 여정에는 기대했던 설렘과 만나는 수많은 사람이 보여주는 하모니를 자신들만의 휴가에서 볼 수 있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휴가를 통해서 느끼며 생각을 환기하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재정비의 기간으로 만들 수 있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생도들은 다음에 만나게 될 2차 일반학기를 준비하며 벌써 겨울 휴가라는 설레는 날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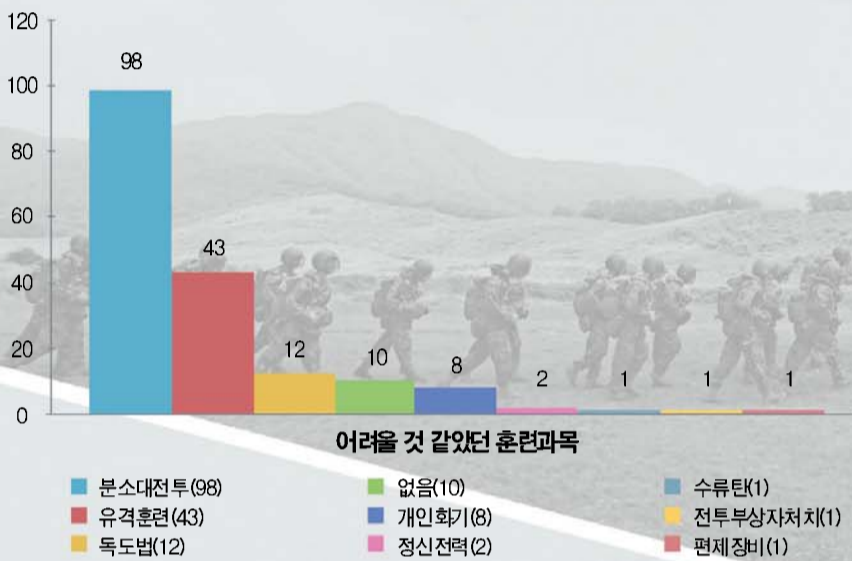
# 61기 생도들의 첫 군사학기, 후기와 고충

60기 이주형, 이승환 기자생도

## 61기 생도들 '사전교육 강화', '실습시간 증대' 원해 '군사지식 함량', '인내심', '자신감' 을 얻을 수 있었던 군사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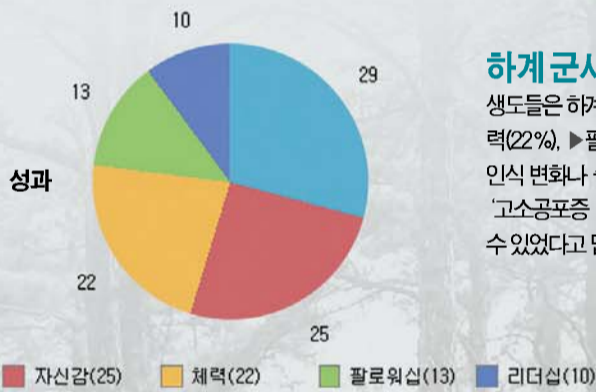
하계 군사학기가 6월 10일부터 진행되어 8월 1일부로 종료되었다. 61기 3학년 생도들은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한 첫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기초군사훈련 간 교장에서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기에, 교장에서 훈련도 처음인 셈이다. 뜨거운 영천 더위 속 장병 기본 훈련과 유격을 수료한 61기 생도들의 훈련 후기와 고충을 들어보았다.

### 군사학기 시작 전 가장 어려울 것 같았던 훈련과목은?



신문사에서는 지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61기 생도 177명에게 '군사학기 시작 전 가장 어려울 것 같았던 훈련'을 물어보았다. 설문 조사 결과 가장 어려울 것 같았던 훈련은 ▶분소대전투(98), ▶유격훈련(43), ▶독도법(12), ▶없음(10), ▶개인화기(8), ▶정신전력(2), ▶수류탄(1), ▶편제장비(1), ▶전투부상처치(1) 순으로 나왔다. 위의 과목 중 분소대전투 훈련에서는 도식과 서식을 작성한 후 임무 하달을 하는 과정으로 평가되었다. 생도들은 공통으로 이러한 평가와 평가준비 과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과목의 경우 '영의 훈련이라는 부담', '교장 이동의 체력 소모', '선배들의 후기'가 훈련 전 어려움으로 작용했다는 답변이 달렸다.

더불어 분소대전투 교육 이후 '공격과 방어에 대한 세밀한 전술 이해 및 숙달이 필요했다', '매우 생소한 과목이었다', '기본 지식의 부재'를 해당 과목이 어려웠던 이유로 설명했다.



### 하계 군사학기를 수료하고 얻은 성과

생도들은 하계 군사학기 훈련 이후 얻은 성과를 ▶인내심(29%), ▶자신감(25%), ▶체력(22%), ▶팔로워십(13%), ▶리더십(10%) 순으로 뽑았다. 훈련 이후 군사학에 대한 인식 변화나 중요도 변화에 대해선 '성취감 경험', '고통의 역치 상승', '훈련의 재미', '고소공포증 극복', '해당 과목의 중요성', '장교로서 군사지식 함량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 군사학 교육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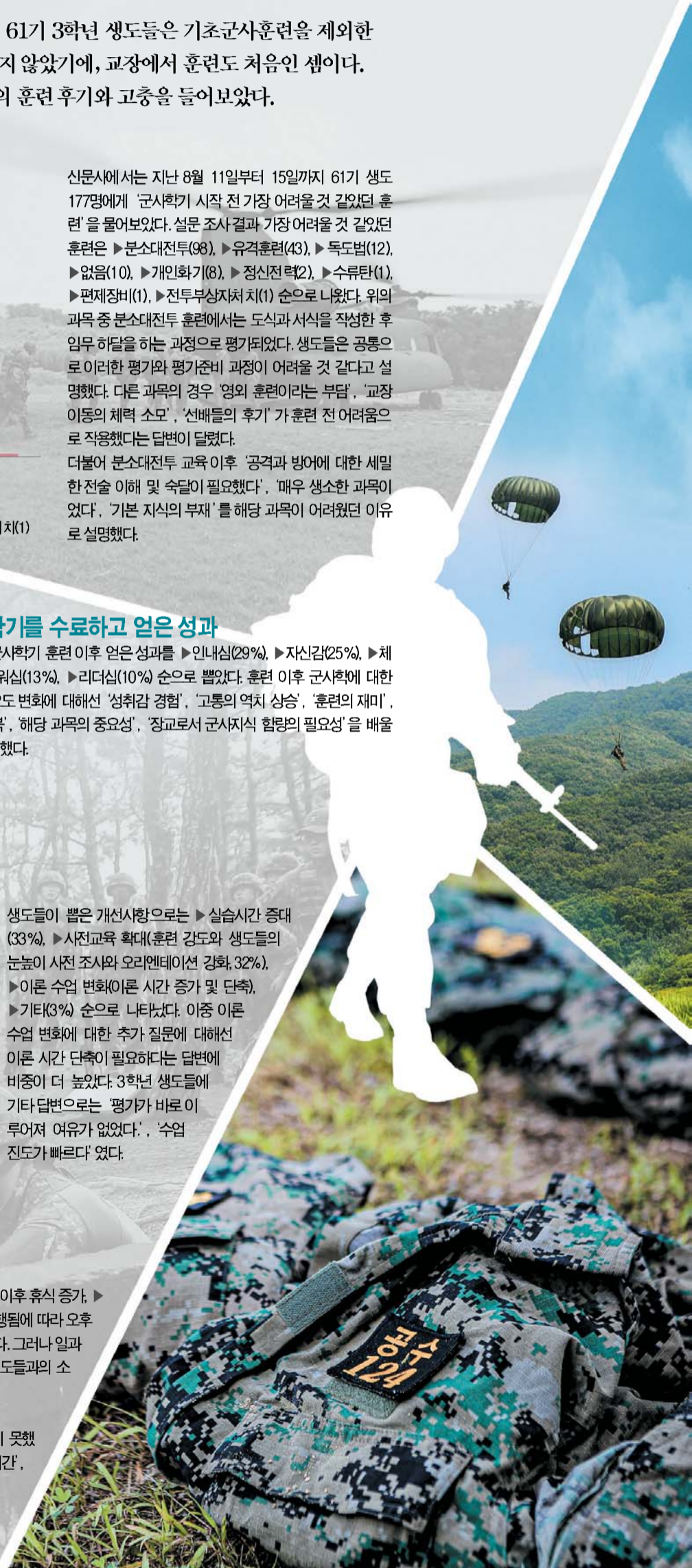


생도들이 뽑은 개선사항으로는 ▶실습시간 증대(33%), ▶사전교육 확대(훈련 강도와 생도들의 눈높이 사전 조사와 오리엔테이션 강화, 32%), ▶이론 수업 변화(이론 시간 증가 및 단축), ▶기타(3%)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론 수업 변화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해선 '이론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답변에 비중이 더 높았다. 3학년 생도들에 기타 답변으로는 '평가가 바로 이루어져 여유가 없었다.', '수업 진도가 빠르다'였다.

### 군사학기간 생활은 어땠는가?

생도들은 군사학기간 누릴 수 있는 장점으로 ▶군사지식 함양 ▶개인정비 시간 증가 ▶훈련 이후 휴식 증가 ▶체력 증가 ▶기타 순으로 답변했다. 혹서기에 진행되는 훈련인 만큼 이른 시간부터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오후에 휴식을 부여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생도들이 군사학기간에 누릴 수 있는 장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과 중 부여되는 휴식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도 조사되었는데, '새로운 생활관 적응', '지휘부 생도들과의 소통', '일반학과 다른 일과 적응' 이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답변됐다.

또한 '같은 하계 군사학기 중대이지만 재교중대마다 다른 지침으로 같은 휴식시간이 부여되지 못했다', '개인정비 시간 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정 전파가 느리다', '일과 이후 대기 시간', '갑작스러운 일정 전파 외 같은 여건 보장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프랑스 생시르 사관생도와의 특별한 순간

프랑스 생시르 사관학교와 교류하던 특별한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처음 매씨우 생도를 만났을 때, 처음 와본 우리나라의 문화나 음식이 어렵진 않을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활관에서 간단한 인사와 소개를 나누며, 저는 매씨우 생도에게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일 일정을 안내하며, 그가 잠자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단결 활동 중에는 힘들지 않은지, 더운 날씨에 편찮은지 살펴보았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마치 어머니처럼 걱정하며 돌봤습니다. 매씨우 생도는 제 진심 어린 배려를 느낀 듯, "너무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낮잠이라도 자고 있지?"라고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고,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교류를 마치고 떠나는 날, 매씨우 생도는 저에게 "너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 친구로, 도움을 많이 주어서 육군3사관학교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교류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의 진심을 알아준 매씨우 생도의 말에 감동하고 짧은 만남 이후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함께 떠나는 버스로 이동하며, 제 이름표를 건네주고 SNS로 계속 연락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프랑스 생시르 사관학교와의 교류 경험을 통

해 프랑스 문화와 사관생도에 대해 깊이 알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향후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알릴 기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특별한 기회가 생겨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학교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61기 나은비 기자생도

# 함께라서 더욱 소중한 공수기본 876기

60기 생도들은 이번 하계군사훈련 동안 진행되었던 공수기본교육을 무사히 수료하였다. 이번 공수기본 훈련 간 특별한 첫 강하를 한 8중대 전우원 생도는 특수전학교에서 근무 중인 아버지와 함께 강하하여 많은 생도의 주목을 받았다.



동반강하를 마친 전우원(왼쪽) 생도와 아버지 전영국 준위

## 전 우 원 생도와의 인터뷰

Q 공수기본훈련을 받으며 느낀 점, 교훈이 있나요?

A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체력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내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면 교관님들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Q 아버지와 함께 강하를 한 소감은?

A 너무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닌 만큼 소중한 순간이었고, 기구에 올라갔을 때 너무 떨리고 두려웠지만 먼저 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뛰고 나서는 한계를 극복한 스스로가 너무 뿌듯했습니다.

Q 수료를 한 입장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 다른 동기들이 잘하든 못하든 신경 쓰지 말고 나무터 최선을 다했는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훈련받다 보면 어느새 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공수훈련을 하게 될 61기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60기 배 광진 기자생도

# 충성 리더십 교육을 다녀와서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학년(61기) 생도들은 영천의 팔공산 자락에 자리잡은 은해사에서 1박 2일간 회량과 리더십, 그리고 사찰 문화를 체험하는 충성 리더십 교육에 참여하였다.

은해사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체험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꼈으며, 특히 밤하늘의 쏟아질 것 같은 무수한 별들과 별뿔별이 인상 깊었다. 모태신앙이 기독교인 한 생도는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고, 특히, 스님들과의 대화 중 "피할 수 없으면 얻을 것을 얻어라"라는 말씀이 와 닿았다고 한다.

또한, 군사사학과 교수님의 회량 관련 강의가 이번 교육을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생도가 바쁜 생활 속에서 은해사에서의 휴식과 계곡에서의 시원함을 통해 큰 인정을 느꼈으며, 동기들과의 소중한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이번 충성 리더십 교육은 생도들에게 깊은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냈으며, 은해사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 그들의 군사적 및 인문적 소양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60기 강지애 61기 나은비 기자생도





칼럼 I



중령 문은석  
(사회학처 정치외교학교수)

**대한민국**을 덮친 인구절벽의 사회적 위기 현상은 국방인력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 군은 이에 대비하여 상비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이 병력을 유지할 최소 인원을 확보하기도 현 운용 중인 인력을 유지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학교도 생도 모집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올해 두 차례에 걸친 모집홍보활동과 3차 선발시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모집률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아울러 특별전형 도입을 포함한 입시제도의 개선과 교과과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우리 육군을 선도한 인재를 구하고,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재 영입을 위한 노력은 비단 군뿐 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롭고 참신한 인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쇄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기술 혁신과 시스템 개선도 사회와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하지만 결국 역사를 이루는 것은 사람이기에 사람이 부족한 이 시대일수록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다.

One man Vision -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을 대신해 삼도수군통제사가 된 원균은 조정과 도원수 권율의 명령에 의한 단 한 번의 출동으로 칠천량 해전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다. 그 결과 조선 수군은 궤멸되었고, 호남 지역이 초토화되었으며 수많은 조선 백성이 희생되었다.

1923년 아돌프 히틀러는 단 1표 차이로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나치당을 장악하게 된다. 1표 차이로 당선된 그

는 1934년 독일 총통에 올랐고, 이후 5,000만 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낸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수괴가 되고 말았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한 사람의 확신으로 세워졌다. 1636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존 하버드는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하버드 대학을 설립하였다. 당시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돈 700파운드와 책 300권이 전부였지만 학문을 발전시켜 자자손손

그것을 전하리라는 그의 꿈은 원대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세운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지금도 그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다. 하버드 대학은 지금도 지도자들을 양성해 내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 노벨상 수상자들을 무수히 배출하였다. 한 사람의 꿈과 확신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1930년 아시아 최초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천재 물리학자 찬드라세카라 박사는 1947년 수강생이 단 두

명이었던 시카고 대학의 고급물리학 강의를 위해 일주일에 두 차례 1시간씩 차를 몰고 출근하였다. 그로부터 10년 뒤 1957년 그의 수업을 들었던 양전닝, 리정다오 두 학생은 함께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들은 수상 소감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열정적으로 강의했던 찬드라세카라 박사님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사람의 귀중함을 알았고 자신의 귀한 시간을 두 제자를 위해 투자하였다.

One Man Vision. 필자가 사관학교 교수로서 생도 교육에 임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외치는 슬로건이다. 수업을 위해 강의실로 들어갈 때마다 상담을 위해 나의 연구실을 찾아오는 제자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육군의 미래가 될 제자 한 사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다. 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나뉠의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나를 포함한 우리 학교의 우수한 교수와 훈육관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성원을 힘입어 그가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을 터트리며 우리 학교와 육군, 나아가 대한민국의 동량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칼럼 II



소령 문용득  
(인문학처 군사사학 교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Si vis pacem, para bellum.” 전쟁과 안보를 이야기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보고 들어봤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군인들은 이어진 문장을 알고 있을까? 바로 “승리를 원하거든 군인들을 열심히 훈련시켜라”다.

이 군사 금언들은 4세기 말 로마의 베게티우스(Flavius Vegetius Renuus)가 집필한 『군사학 논고(De Re Militari)』에 쓰여있다. ‘전쟁 억제에 기여’하고 ‘지상전에 승리’한다는 우리 육군의 목표처럼 베게티우스의 문장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교훈을 주고있다.

Therefore, he who desires peace, let him prepare for war. He who wants victory, let him train soldiers diligently. He who wishes a successful outcome, let him fight with strategy, no at random. No one dares challenge or harm one who he realizes will win if he fights.

『Vegetius: Epitome of Military Science』 2nd edition (N.P. Milner 영역판), p.63 Book III Preface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고, 승리를 원하거든 끊임없이 훈련하라는 군사 금언처럼 우리 생도들은 정예 장교로 성장하기 위해 전투전문가, 나아가 군사전문가로의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 능력의 핵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직과 무기체계를 활용하여 승리하는 군대로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싸워 승리하는 것도 원칙을 갖고, 전략·전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교는 승리라는 결과를 넘어 국

고실력을 입증하면 부와 권력을 얻을 수도 있었다. 그러한 군 안팎의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군인이 싸워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환경은 오히려 훈련에 집중하기 어렵고, 군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는 편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군사전문가 집단인 장교단에 유능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점점 적어지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는 장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생도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군대는 국가 최후의 보루이고, 강한 군대가 강국의 밑바탕임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현재 처한 위기의 해결 방안들이 다방면으로 모색되고 있다. 5년,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싸움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리라 기대한다.

지금의 문제 해결은 선배 장교들, 기성세대에 맡겨라. 기회는 준비한 자가 쟁취하는 법이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스스로 미래에 군사전문가로 우뚝 선 그대들의 모습을 그리며, 오늘 모자람을 조금씩 채워나가길 바란다.

“승리를 원하거든...”

베게티우스가 『군사학 논고』를 쓴 계 된 이유는 전성기 로마군단을 고찰함으로써 당시 부실하고 부패한 로마군대를 바로잡아 로마제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싸워 이기는 군대의 조건으로 철저한 훈련과 전기전술의 연미를 강조했다.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이 없던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수 세기에 걸쳐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강력한 로마군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가의 안위, 부하의 목숨 등 감당해야 할 위험요소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교가 지적인 단련없이 체력이나 전투기술에만 집중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한편 오늘날 우리 군은 강군육성의 현실에 있어 너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과거 로마 시민은 군단의 일원이 라는 것으로 사회적 대우와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였고, 열심히 능력을 갖추



명예 칼럼리스트 칼럼



주재우  
(경희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작년 9월** 4일 본지에 ‘국제 관계에서 대부분의 답은 지도에서 찾을 수 있다’를 게재했다. 이어서 한반도 국제관계의 해답 역시 지도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즉,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우리는 나름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에게 교두보 또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거쳐야 가능하고, 해양 세력의 대륙 진출 역시 한반도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그림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 가치를 누가 이렇게 정의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이를 진리처럼 받아들였다. 역사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데

도 말이다. 역사는 대부분의 해양 세력이 동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한반도를 거쳐 간적이 없다고 증명한다. 해양을 통한 해양 세력의 중국 대륙 진출은 아편전쟁(1840-42)을 즈음하여 시작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서구 국가들로, 스페인 반도 쪽에서는 지볼로더 해협, 그리스 반도와 이탈리아 반도는 지중해에서부터 출발한다. 아프리카 서쪽 바다를 항행한 후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우회해 모잠비크 해협을 경과한 후 홍해와 중동 바다를

유일하게 한반도를 통해 중국 대륙의 진입을 노렸던 나라는 일본이다. 이런 시도가 역사상 2번 있었다. 1592년 임진왜란과 1930년대의 대동화전쟁이다. 두 사건의 목표는 중국 대륙의 점령이었다. 이의 성공의 전제는 한반도의 점령이었다.

대동화전쟁을 위해 일본은 1905년 한일합방을 일궈냈다. 왜냐하면 일본이 중국이라는 대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원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학적 전략 가치는 일본 사관(史觀)이라 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 가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존재하면서 변했다. 제1도련선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 서로의 최전선 방어선과 최후방어선으로 규정해, 두 나라가 전쟁이 벌어지면 이 방어선을 수호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일 것이다. 중국은 최후방어선을 사수할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가 중국의 최후방어선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중국 사활을 건 저지선을 미국이 뚫기보다는 한반도에서 바로 중국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 대만해협 유사 사태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 가치가 새로이 발휘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은 이처럼 기고하다. 다른 반도와 다르게 한반도 주변에는 중국과 일본만이 존재한다. 통설적인 개념에서 반도국으로 주변국에 원교근공(遠交近攻), 합종연횡(合從連橫)하면서 균형 외교하기가 어렵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유지로 미국이 동아시아지역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 가치의 진정한 의미

거쳐 인도양으로 진입한다. 인도양에서 인도차이나반도로 진입하는 길목인 말라카 해협을 통해 남중국해를 항행했다. 그리고 이들이 당도한 곳 대부분이 중국 광둥성의 유입 지역인 홍콩의 구룡반도다. 이후 중국의 오늘날 절강성의 Ningbo(寧波)와 상하이, 양자강 유역, 하북성의 텐진(天津) 등의 항구로 이들은 중국 대륙에 진출했다. 아편전쟁 이후 이들과 중국 수군(水軍)과 포대의 격전지도 이곳이다.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 이처럼 한반도를 거쳐 중국 대륙에 진출하지 않았다.

보급품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후방 기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노량’, ‘명량’ 등의 영화에서 봤듯이, 당시 일본수군은 노를 저으며 항행했다. 비행기로도 서울과 베이징에서도 요까지 각각 2시간, 4시간이 걸린다. 일본으로서는 후방 보급 기지를 본국에 두고 대륙을 점령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한 곳이 한반도다. 그렇기에 중국 대륙을 점령하려는 일본에게 한반도의 점령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로 받아들이는 한반도의 지정

사인저명인사 칼럼



송창수  
(동덕여자대학교 민화학과 교수)

**민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민화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문화적 감성을 표현한 대중적인 실용화라고 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기원이 더 멀리 소급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현대의 이르기까지 민간에서 크게 유행했던 회화 중 하나로, 궁궐그림에서 민간 그림까지 모든 이의 꿈과 희망을 아우르는 민족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민화는 조선시대 엘리트 문화의 산물인 문인화 등에 비해 한국적 특색이 강한 그림이다. 대체로 현세의 행복을 기원하는 길상적 의미가 강하지만 소재는 인물, 산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기교를 중시하지 않는 서민의 그림이다 보니 격식과 이론

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만의 독특한 양식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화려한 원색의 채색화이다. 용도에 있어서 문인화 등이 작가 개인의 철학과 감성을 드러낸 감상용 그림이라면 민화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고 생활의 공간을 꾸미고 장식하는 실용화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순수 감상용 그림이 아니라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감성이 짙게 배어있는 한국 고유의 생활 미술인 것이다.

기 등의 본(本)으로 디자인되어 의복, 가구 등 중요한 생활용품을 장식했다. 한마디로 민화는 생활과 동떨어진 그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용해되어 함께 숨 쉬고 어우러져 온 문화인 것이다. 이처럼 민화의 속성은 현대에 와서 더욱 진화, 발전되고 있다. 본을 통해 이미지가 복제되고, 작가의 창의력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될 수 있는 민화의 특성이 현대적 이미지로 되살아나고 있다. 민화를 활

력이다. 민화가 평범한 사람들이 그린 비범한 예술이라는 말처럼 민화에서는 강요되고 학습된 기교나, 무언가 깊은 뜻을 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을 느낄 수 없다. 대신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떠한 것도 의식하지 않은 완벽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바로 의식의 해방감이다. 민화에서 맛볼 수 있는 이 해방감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 땅에서 같은 역사를 공유한 민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삶의 공통분모 같은 것이 아닐까.

행복을 담은 그림, 민화

민화의 작가층 또한 매우 다양하다. 기본적으로는 민간의 이름 없는 작가들에 의해 그려졌다는 점에서 ‘무명성’이 가장 큰 특징이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통시대의 민화 작가 중에는 도화서 화원에 못지않은 기량을 지닌 사람도 있었으며, 사찰 등에서 불사에 종사했던 스님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전해지는 옛 민화 중에는 궁궐그림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그림들도 적지 않다. 민화가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무궁무진한 응용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민화는 회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림보다도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수(刺繡)나 나전칠

용한 벽지, 가구, 각종 텍스타일 제품, 다양하기 이를 데 없는 문화상품들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는 어떤 전통문화콘텐츠도 따라올 수 없는 민화만의 강점이다. 앞으로도 민화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으로서뿐 아니라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더욱 많은 분야에 응용되고 융합되어 그 가치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민화가 지닌 매력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감상자가 느끼는 자유로움과 해방감이다. 그것은 형식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뭔가 잘 그리겠다는 강박관념에서도 벗어난, 민화 특유의 자유분방한 표현방식에서 우러나는 매

민화는 또한 우리의 팍팍한 삶을 보듬어 주는 ‘위로의 그림’이다. 오늘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버거운 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는 사실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럴 때쯤 느끼고 불편하지만 따뜻함과 정겨움이 서려 있는 아날로그적 감성이 현대인의 위로가 될 수 있다. 민화에는 디지털 시대에 결여되어 있는 소박한 염원, 따뜻한 유머,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한 휴머니티가 담겨있다. 디지털 시대의 삭막함과 상대적 박탈감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아날로그 감성이 오롯이 서려 있는 놀라운 문화유산인 것이다. 민화는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는 위로의 그림이자 행복을 담은 그림이다.



2024 트렌드 노트

# 걸밴드라는 새로운 트렌드, 그 중심의 QWER



김종민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팀 연구원

2024년 5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라인업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다. 4인조 여성 밴드 'QWER'이 그 중심에 있었다. QWER은 300만 구독자의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 김계란을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들이 모여 2023년 결성된 밴드다.

일부 팬들은 이에 우려를 비치기도 했다. 인터넷 스트리머로 시작한 데뷔 1년도 채 되지 않은 밴드, 심지어 일부 멤버들은 음악을 전공한 이력 없이 밴드를 시작했다. 이들은 무대를 잘 마칠 수 있을까? 올드 락 팬들이 실망해서 안 오지 않을까?

막상 락 페스티벌 당일이 되자 QWER을 보려고 참가한 사람들의 줄이 너무 길어서 본 무대에는 절반의 인원밖에 수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루키'라는 우려를 딛고, 락 팬들도 라이브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다는 평을 보냈다.

락 페스티벌에 초청되고 무대를 한 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다. QWER은 방송 출연이 없었음에도 MBC 음악중심 1위 후보에까지 올랐고, 각종 대학 축제에 초청되어 무대를 선보이고 실력과 인지도를 쌓아 올리고 있다. QWER의 인기는 밴드에 대한 로망 때문일까? 아니면 걸그룹으로서 외모가 주목받는 것일까?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다. 걸밴드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QWER을 통

해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QWER의 결성과 성장 과정은 일종의 문화 현상이다. QWER은 뉴미디어, 서브컬처 게임이라는 큰 세 가지 문화적 배경을 두고 있다. 우선 멤버들이 뉴미디어 기반이다. 멤버들은 개인 방송 스트리밍을 하던 방송인이거나 숏폼 영상을 올린 틱톡커다. 이들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와 정반대로, 비탐업 방식으로 인지도를 얻어왔다. 다른 아이돌이 인지도를 얻는 방식을 생각해 보자. 4대 기획사에서 연습생을 선발하고 그룹이 완성되면 이를 발표한다. 4대 기획사가 그 중심에 있다. 이와 반대로, 뉴미디어는 모두가 방송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 자발적으로 모인 시청자들이 인지도를 부여한다. QWER의 멤버 뿐만 아니라 기획자인 김계란도 이러한 방식으로 인지도를 얻었다.

다음은 서브컬처다. QWER의 데뷔 프로젝트는 '최애의 아이들'이며, 이는 일본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에서 이름을 따왔다. 컨셉은 또 다른 애니메이션 '붓치 더 락'에서 차용했다. 소녀들이 모여서 밴드를 만들고 성장한다는 서사다. 이러한 명칭 개념, 서사 모두가 서브컬처인 일본 애니메이션 등을 기반에 두고 있다.

QWER이라는 이름과 팬덤명 '바위게'는 게임에서 비롯됐다. 리엇게임즈의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입력키가 QWER이고, 바위게는 게임 속 몬스터의 이름이다. 실제로 QWER이 인지도를 얻게 된 가장 큰 계기 중 하나가, 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월드컵) 무대 전야제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이름을 딴 그룹이 실제 게임사의 무대로 초청된 것을 보고, 게임 팬들은 '일 잘했네 칭찬이 아깝지 않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반응했다.

이처럼 QWER은 뉴미디어 서브컬처 게임이

라는 세 가지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문화적 기반이 확실하다는 것은, 그 문화를 향유하는 타겟이 명확하다는 말이 된다. QWER의 활동과 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아주 확실한 타겟에게 향한다. 이 타겟 집단은 작은 사건을 큰 문화적 트렌드로 확장시키곤 한다. 그 결과, QWER은 '걸밴드'라는, 국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더 큰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에 '붓치 더 락' 같이, 걸밴드를 그린 애니메이션까지도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걸밴드라는 가능성을 마냥 낮설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올드 락 팬들의 유입이 이에 가속도를 붙였다.

**성장에 대한 응원, 청춘과 낭만: QWER, 걸밴드 트렌드에서 읽을 수 있는 것**

| 순위 | 키워드  | 연급 비중 |
|----|------|-------|
| 1  | qwer | 27.4% |
| 2  | 밴드   | 16.3% |
| 3  | 걸그룹  | 14.3% |
| 4  | 김계란  | 11.8% |
| 5  | 아이돌  | 7.2%  |
| 6  | 노래   | 6.2%  |
| 7  | 미젠타  | 4.6%  |
| 8  | 보컬   | 4.4%  |
| 9  | 멤버   | 4.2%  |
| 10 | 고민중독 | 3.5%  |

< 걸밴드' 연관어 순위, 출처 Somtrend, 커뮤니티, 2023.01.01-2024.07.31 >

## 걸밴드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QWER

QWER은 '걸밴드'라는 트렌드를 대중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최초의 그룹이다.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 걸밴드 컨셉을 시도한 것은 QWER이 처음은 아니다. 25년 전 여성 멤버를 주축으로 활동했던 '한스밴드'가 그 시초다. 한스밴드는 데뷔 직후 관심을 모았으나 멤버들의 학업 이슈로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음은 2012년의 AOA였다. AOA는 FNC의 선배 가수인 FT아일랜드, 씨엔블루를 잇는다는 포부를 내세우며 걸밴드로 시작했다. 다들 결과를 알고 있듯, 밴드 컨셉은 당시 대중들의 코드와는 너무 멀었고 결국 섹시 컨셉으로 전향해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

다음은 2015년의 원더걸스다. 원더걸스는 멤버를 교체하며 밴드 음악을 시도했고 실제로 음악 방송 1위를 기록하는 등 성적도 성공적이었다. 다만, 대중적으로 원더걸스는 '걸밴드'로 기억되기보다는 'Tell me'와 'Nobody' 시절의 원더걸스로 기억될 뿐이다.

QWER과 걸밴드라는 트렌드의 등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낭만이다. 여기서 낭만의 의미가 무엇일까? 밴드의 결성 과정을 생각해 보자. 젊은 청년 한 명이 음악이 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상경한다. 화려한 무대는 멀지만 하다. 그렇지만 우연히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을 만나게 된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연명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찾아 달려나가는 스토리다. 이는 실제 유명 밴드의 이야기들이다. 비틀즈, 오아시스, MCR 등 유명 밴드들은 이처럼 드라마틱한 청춘과 열정의 스토리를 공유하고 있다.

실제로 QWER은 젊은 청춘들의 희로애락이 공존하는 공간을 주 무대로 삼고 있다. QWER이 출연한 무대는 음악 방송이 아닌, 대학 축제와 군부대 위문 공연과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QWER의 유튜브 직캠 영상 순위권을 살펴보면, 대학 축제가 상위권에 위치한다. 이는 사람들이 걸밴드, QWER에서 소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QWER의 프로덕션 측에서도 이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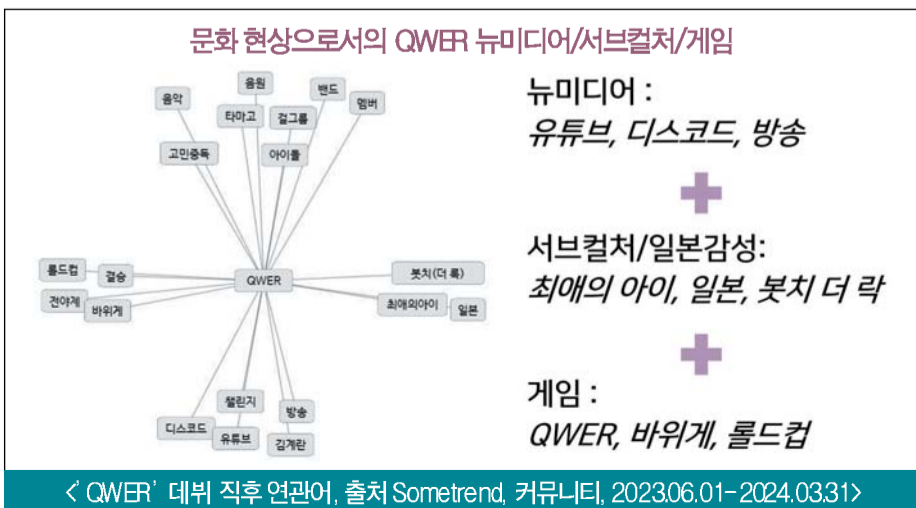
## QWER 직캠 유튜브 영상 조회수 순위(2024년 8월 1주차 기준)

| 영상 제목                              | 조회수     | 대학 축제 여부 |
|------------------------------------|---------|----------|
| 역시 경력직 아이드로 시요밍 ...                | 3800799 |          |
| QWER '고민중독' 쇼케이스 ...               | 1225890 |          |
| [FULL FOCUS] 고려대학교 축제 ...          | 722652  | 대학 축제    |
| QWER - 고민중독 치어리딩 파트 응원 해주는 고려대 ... | 567648  | 대학 축제    |
| 초단 드림 솔로 할 말이 없네 ...               | 312024  |          |

QWER은 대조적으로 '걸밴드'라는 키워드 자체를 견인하고 있다. 25년 전의 한스밴드, 13년 전의 AOA, 10년 전의 원더걸스의 시대에도 걸밴드는 아직 시기상조였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서브컬처 열풍을 타고 J-pop에서부터 밴드 열풍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다. 일본 애니메이션에 삽입된 OST에서 이를 접한 젊은 세대들은 밴드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진 상태였다. 여기

이처럼 사람들은 QWER이 성장하는 서사를 응원하고 일상 속에서 희미한 낭만의 가치를 찾고 있다. 처음에는 스트리머들이 모여 낯은 기대로 시작했지만 점차 큰 무대를 경험하며 실력이 성장하는 밴드를 응원한다. 이들이 보내는 응원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청춘에 보내는 응원이 아닐까? 불안하고 불확실한 청춘 그림에도 낭만을 간직한 채로 성장이라는 희망을 믿고 있는 사람들. QWER을 통해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아낌 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





## 동문(同門)의 소리 I

대위 강태현(3사 5471)  
제55보병사단제170보병여단

필자는 더 큰 꿈을 꾸기 위해 2025년 2월 군조직을 떠나 7월에 경찰조직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항상 3사관학교 출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후배들을 위해 필자가 3사관학교 출신으로서 느꼈던 자부심과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공유하고자 한다.

## 자부심 : 그 누구도 장교의 '책임감'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

하나, 임관 후 24살 소위 시절, 장교라는 이유로 배출된 야전에서는 실탄과 수류탄을 휴대하며 북한 인공기가 보이는 철책에서 매일 필자의 목숨과 예하 소대원 30명의 목숨을 담보로 경계작전을 책임지는 소초의 장(長)이라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하루하루 경계작전을 하면서 "24

살에 어느 누가 휘하 30명의 부하를 데리고 적을 앞에 두고 목숨을 걸고 일해봤을까? 내가 지금 느끼는 책임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둘, 25살 중위 시절, 대대 인사과장이 되었다. 인사과에는 필자를 포함한 인사담당관(상사), 군기강부사관(중사), 인사계원 2명 총 5명이 대대원 400여 명의 장교, 부사관, 용사 신분을 망라한 모든 인사 분야의 업무를 책임졌다. 장병들의 진급, 휴가, 재정, 포상, 징계, 의무, 안전관리, 복지 등 '만사(萬事)가 인사(人事)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많은 분야의 일을 총괄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과장이라는 직책으로 대대 주요직위자 회의에 들어가 각종 업무와 부대 일정 조정·협조·통제 등 소통하는 경험을 했다. "25살에 어느 누가 400여 명을 거느린 조직의 주요직위자로서 타 부서와 업무를 조정·협조·통제하고 400여 명의 전반적인 인사를 담당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해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셋, 28살 대위 現 시절, 필자는 100여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중대장이 되었다. 중대장으로서 중대원들을 지휘·통제하고 조직의 장(長)으로서 윗사람에게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내는 용기와 수궁할 때는 수궁하는 융통성을 배웠다. 또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직이 움직이는 방향이 된다는 사실과 소대장들과 중대 간부들을 관리하며 조직을 이끌고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값진 경험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느 조직이든 100%를 만족시킬 수 없음과 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는 것을 배웠다. "과연 20대 후반의 나이에 어느 누가 100여 명의 조직원을 관리하는 장(長)으로서의, 그리고 리더로서의 경험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일부 SNS상에서 일부 몇몇 사람들이 "군 생활은 시간

낭비며, 배우는 게 없다"라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다. "군이 라는 조직이 정말 배울 점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당신이 배우지 못한 것일까?"라고 말이다. 필자는 사회의 그 누구도 장교의 '책임감'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마인드 : 회복탄력성, 아팠던 만큼 튀어 오를 수 있는 힘

회복탄력성은 역경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1층 높이에서 떨어트린 탱탱볼 A와 10층 높이에서 떨어트린 탱탱볼 B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높이 튀어 오를까? 바로 10층 높이에서 떨어진 탱탱볼 B다. 떨어지는 에너지가 클수록 높이 튀어 오른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갈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튀어 오를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후배들의 생도 생활과 장교 생활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회복탄력성이라는 마인드를 가져보길 바란다. 힘들고 아팠던 만큼 더 높이 튀어 오를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또,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가기를 바란다. 아픔을 이겨 내본 사람만이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으며, 올라가 본 사람만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

필자는 20대 청춘을 3사관학교와 군에 바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장교로서 배운 책임감과 회복탄력성이라는 마인드가 있기에 가능했다. 후배들도 출신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회복탄력성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이라는 항해 길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기를 바란다.

## 동문(同門)의 소리 II

대위 정문경(3사 5571)  
인사사령부, 미국일리노이 대학 석사과정

## 'You may be whatever you resolve to be'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해당 문구는 필자가 다녔던 버지니아 군사대학교의 생활관 건물에 새겨진 미남부연맹 잭슨 장군의 유명한 문구이다.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잘 함축하고 있다.

절박감을 느껴본 적 있는가? 생도 시절 김재현 훈육대장님, 권지민 교수님께서 는 노랑진을 꼭 한 번 방문해보라고 하셨다. 방문한 결과, 수많은 고시생이 사활을 걸며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절박감을 느꼈다. 과연 우리는 이들과 같은 절

## 결심하는 대로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박감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한 적이 있는가?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 2에서는 불안이가 등장한다. 불안이는 라일리가 하기를 잘하게끔 채찍질을 한다. 불안이의 원동력은 '나는 아직 부족해'라는 생각이다. 이처럼 적절한 선에서 절박감 섞인 동기부여는 인생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부족함과 절박감을 활용하여 자기계발에 노력하자. 필자의 경우 유학 경험 때문에 영어가 특기다. 하지만 한국에서 영어를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을 해왔다. 만약 경험만을 믿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현 수준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You can't ever reach perfection, but you can believe in an asymptote toward which you are ceaselessly striving. (우리는 결코 완벽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거리가 한없이 에 가까워지는 점근선처럼 우리가 완벽을 향해 끝없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 숨결이 바람이 될 때 (폴 칼라니티) -

필자는 생도 때부터 특전사에서 복무하기를 희망했고, 이를 위해 노력했으나, 미 해군 출신 윌리엄 맥레이브 장군의 책 '침대에서 정리하라'에 나온 말처럼 삶은 공평하지 않았으며 실패를 거듭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운동은 꾸준히 지속하며, 특기였던 영어 실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토플, 토익, 오픽 시험을 봤으며, 통번역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 결과, 한빛 14진 통역장 교과평, 장기 선발, 우수한 토플 성적 등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만약 첫 인사명령에 실망하고 무엇이든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나태했었다면 이러한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른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 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필자에게 육군 3사관학교 영어학과 교수의 자리가 올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운 좋게 2024년도 위탁선발 계획에 해당 직책을 위한 위탁 교육 선발이 공고되었다. 과거에 취득했던 각종 시험 성적 및 자격증을 통해 위탁선발을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지원하여 선발까지 이르렀다.

Luck is what happens when preparation meets opportunity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생기는 것이다)

- 고대 로마철학자 세네카 -

특기가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필자의 특기를 예로 들어, 각종 영어 시험이 목표가 되었다면 해외 위탁선발이라는 기회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많고 좋은 영어성적이 있다고 한들, 이를 활용할 수 없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특기는 특기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특기가 무엇이든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비록 선후배 및 동문들에 비하여 부족한 군 경험이지만, 군 생활을 경험하며 느꼈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여러분 모두 결심한 대로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소령 김정 한**  
47기/보병  
6사단 19보병여단

- 제47기 생도 과정 성적 우수(육군3사관학교장 상장)
- 초군반(OBC) 성적 우수(육군보병학교장 상장)
- 17-2기 고군반(OAC) 성적 우수(육군보병학교장 상장)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주간위탁 석사과정
- 국방·군사공무원 제안 관리 유공(제2작전시령관 표창)
- 편제 장비 편성심의 추진 유공(제2작전시령관 표창)
- 린 6시그마 사업 추진 유공(국방부장관 표창)
- 23-3기 소령지휘참모과정 성적 우수(육군대학총장 상장)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선·후배님과 동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에 선정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짧지만 군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을 몇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① 현장에 답이 있다. ② 부하를 보고 지휘해야 한다. ③ 사람 관계에서는 예의가 중요하고 이를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다. ④ 작고 사소한 일에도 정성과 최선을 다하자. ⑤ 물입을 잘해야 한다. ⑥ 규칙을 잘 지키자. 이 6가지는 이미 모든 분이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과 노력, 행동이 여러분을 조금 더 꿈과 목표에 가까운 곳으로 이끌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사관학교 파이팅!



**중위 김진 훈**  
58기/보병  
53사단 기동대대

- 23-1기 신입장교 지휘참모과정 성적 우등상(육군보병학교장 상장)
- 23년 사단 최우수 교관(제53보병사단장 표창)
- 23년 사단 TOP-TEAM(제53보병사단장 상장)
- 23년 육군 최우수 소대(육군참모총장 표창)
- 24년 전쟁영웅상 동춘상(육군참모총장 표창)
- 24년 드림뽀뽀 장려상(인사참모부장 상장)
- 24년 전반기 간부사격경연대회 최우수(제53보병사단장 상장)

2년의 생도 생활 간 함께 웃으며 땀 흘린 주변 동기들이 가장 소중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격 차이로 맞지 않는 동기들도 있었지만, 임관 이후 야전에서 만나면 누구보다 반가운 존재일 것입니다. 야전에서 외롭고 힘들 때 큰 힘이 될 주변 동기들과 남은 기간 좋은 추억을 쌓으며 지·덕·체를 겸비한다면 누구보다 훌륭한 장교가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자랑스러운 후배 장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선배 장교로서 야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17대 총동문회 분과위원장 및 수석부회장 임명장 수여, 현안토의



▲ 윤리/분쟁조정 분과위원장 오준섭(5기)



▲ 수석부회장 황인권(20기)

지난 7월 16일, 제17대 총동문회 분과위원장 및 수석부회장 임명장 수여와 현안토의를 총동문회관에서 진행했다.

박경중 총동문회장은 임명장을 수여한 후 “흔쾌히 중책을 수락해준 임원들에

게 감사하고 각 위원회 중심으로 동문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날 모인 인원들과 총동문회 현안들을 논의하고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3사총동문회

### 분과위원장

- 윤리/분쟁조정 분과위원장 : 오준섭(5기)
- 총괄 및 기획 분과위원장 : 오영수(20기)
- 총괄 및 기획 분과위원 : 류인수, 윤현수, 박범식(20기)
- 홍보 분과위원장 : 임재동(20기)
- 홍보 분과위원 : 김남식(20기)
- 모교발전 분과위원장 : 박동순(20기)

- 대외협력 분과위원장 : 황인권(20기)
- 문화체육복지 분과위원장 : 문용현(21기)
- 문화체육복지 분과위원 : 권주성(27기)
- 조직강화 분과위원장 : 박준석(22기)
- 조직강화 분과위원 : 서재광(34기), 김태겸(43기)
- 안보연구소장 : 장광선(25기)

### 수석부회장

- 황인권(20기)
- 장달수(21기)
- 구본규, 이상용(22기)
- 오윤식, 한상훈(23기)
- 이성열, 안성원(24기)
- 양정훈, 김영배(25기)





### 총동문회,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 유용원, 강대식 국방위원 방문



지난 7월 24일, 총동문회는 박경종 총동문회장을 비롯하여 박종진(17기) 동문, 이용환(26기) 3사관학교장, 박용후 대표(3사관학교 발전자문위원장)가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 유용원·강대식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후배들의 '임관 시 장기복무 군인사법 일부개정'에 대해 청원하고 모교의 발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경종 총동문회장과 이용환 학교장은 '후배들이 임관 시 장기복무'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군인사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및 유용원·강대식 국회의원은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 발의 및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3사총동문회**



### 2024년 동기회장 간담회 개최



지난 8월 7일, 박경종 총동문회장,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약 40여 명의 각 동기회장 또는 동기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문회관에서 동기회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7대 총동문회 출범에 따라 총동문회의 지난 역사와 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총동문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각 동기회의 발전적인 의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총동문회장은 "제17대 총동문회가 정관과 동문 요구사항에 충실하고 전 동문이 만들어 가는 명품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각 동기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3사총동문회**



### 정경조(11기) 장군, 제20대 평안남도 도지사 취임



▲ 제20대 정경조 평안남도도지사의 취임사

지난 8월 9일, 이북5도청 평화강당에서 제20대 정경조 평안남도 도지사의 취임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취임식에는 박경종 총동문회장, 한경수 사무총장, 유영수 총괄기획위원장 등 오랜 군 생활의 동기생 및 선·후배들과 지인들이 함께 자리를 빛내주었다. 정경조 도지사는 3사 11기로서 3성 장군 출신이면서도 퇴역 후 대학에서 북한학 강의와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자문위원 등 통일 준비 활동들을 활발하게 수



▲ 왼쪽부터 총동문회 사무총장, 총동문회장, 정경조 지사, 총괄위원장

행해왔던 경력이 있다. 이날 정경조 도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를 지켜 나가며 통일을 이루도록 준비하고, 통일 대한민국을 맞이하기 위한 제반 연구, 조사업무와 정책을 잘 준비하며, 북한 이탈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화합되고 단결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3사총동문회**



# 학교 발전재단 소식

## 2024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4. 6. 27. ~ 8. 31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 (총 기부액), 단위 : 만원

총 자산 96억 4천만원(2024. 8. 31. 기준)

### ■ 단체

인천경기기부모회 51만원

### ■ 학교발전 동참 특별기부자('24. 6. 27~8. 31. 기부현황)

김호길(육사#48 289), 두석주(육사#51) 2248, 류지만(육사#52) 221, 변용성(육사#53) 2139, 이주실(육사#53) 1(115), 김대영(육사#59) 2208, 문은석(육사#59) 2(112), 홍희중(육사#61) 2(135), 홍인재(육사#63) 2(68), 문준호(육사#67) 276, 김홍재(육사#71) 226, 한덕수(학군#26) 2145, 남기웅(학군#29) 2(50), 구희곤(학군#32) 4(178), 송경재(학군#37) 2(162), 이정훈(학군#38) 1(115), 정우림(학군#46) 2(56), 홍현신(학군#48) 2(58), 유성국(학군#54) 2(13), 최재호(학사#29) 2(162), 임도현(학사#54) 2(141), 구주현(학사#53) 2(64), 성현애(학사#56) 2(84), 심정현(학사#58) 2(72), 최윤정(간사#38) 2(77), 문길섭(준위) 2(20), 송승현(원사) 2(19), 강필승(군무원) 2(26), 이수진(군무원) 2(48), 최지욱(군무원) 2(13), 정시연(군무원) 2(59)

### ■ 졸업생 가족('24. 6. 27~8. 31. 기부현황)

윤종택(38 윤호영 부) 10(470), 조경해(45 황정태 모) 10(990), 백인숙(47 모) 2(73), 안순봉(51 박상응 모) 20(1,310), 김현미(52 오치원 모) 3(85), 이영미(52 황성규 모) 6(406), 임성영(52 임강민 부) 1(17), 정정화(52 조강현 모) 2(378), 박일심(53 정필승 모) 2(180), 서완수(55 서지찬 부) 4(154), 정원섭(55 정준영 부) 2(151), 한순옥(55 이현중 모) 100(2,700), 송학빈(56 송용준 부) 2(100), 정희숙(56 배우휘 모) 20(1,530), 조재훈(56 조성진 부) 30(800), 김근택(57 김광진 부) 4(98), 김수말(57 김준모 모) 6(94), 박경석(57 박찬환 부) 4(106), 오유미(57 김주현 모) 4(102), 이동희(57 박찬환 모) 6(143), 김한영(58 김범수 부) 10(155), 최길순(58 최승환 부) 2(53), 현석호(58 현민석 부) 6(33), 정신(59 김종현 모) 2(30), 조철만(59 조현웅 부) 6(56), 현석호(59 현정민 부) 6(33)

### ■ 재학생 부모('24. 6. 27~8. 31. 기부현황)

▶ 4학년 부모 김신혜 2(81), 손학민 6(360), 임성영 1(17), 장은심 2(180), 정미경 10(96), 정지한 10(80), 홍영옥 2(18), 홍혜숙 3(19)

▶ 3학년 부모 김혁 2(308), 신지영 10(25), 최영순 20(60), 황광미 4(14)

### ■ 졸업생('24. 6. 27~8. 31. 기부현황)

- ▶ 1기 김용하 15(255), 남훈조 10(1549), 이기권 1(569), 임관택 2(116), 최익환 2(118)
- ▶ 2기 윤경혁 10(640) ▶ 3기 정영집 10(310) ▶ 4기 임성기 10(160)
- ▶ 9기 권영호 10(600), 김현기 9(1,290), 윤지환 6(249), 최병학 10(1,415)
- ▶ 13기 문성목 20(600)
- ▶ 14기 김길영 2(134), 김종환 3(92), 안호 20(2,260), 이용진 20(540), 이종학 4(171)
- ▶ 15기 김성연 2(562)
- ▶ 16기 이영호 2(163), 이종우 2(196), 황병태 3(345)
- ▶ 18기 구연덕 2(166), 금용백 6(678), 이기환 2(61), 진기상 4(1,148)
- ▶ 19기 김익수 4(255), 이종형 6(362), 이창호 6(684), 임영갑 10(230), 홍성식 2(231), 황영태 6(218)
- ▶ 20기 박권순 4(220), 박동순 2(141), 서정열 2(529)
- ▶ 21기 신철수 4(1,338), 이정문 4(282)
- ▶ 22기 이진성 4(285), 정경호 3(81), 조태환 6(209), 천병규 4(520), 홍성덕 10(291)
- ▶ 23기 김태일 2(266), 신영찬 2(107), 오승욱 4(336), 정철재 4(253), 최승환 2(43), 허강수 4(351)
- ▶ 24기 광종만 4(124), 권오봉 2(250), 김도협 2(268), 김성래 4(104), 모경원 2(263), 박세철 2(106), 박찬웅 2(67), 방성대 9(247), 이문휘 2(128), 정정현 2(227), 홍성희 4(116)
- ▶ 25기 김달호 2(5), 문봉성 4(257), 장무수 2(85), 전희준 2(341), 홍은표 2(235)
- ▶ 26기 고창준 2(504), 신충인 20(207), 신태영 3(129), 양성안 2(32), 유근환 3(72), 이덕우 2(163), 이용환 10(55), 이완주 6(220), 이태인 4(134), 임우영 2(280)
- ▶ 27기 김관수 6(187), 김덕중 2(104), 김성오 4(102), 김용범 2(80), 김지덕 2(58), 김호복 6(398), 나현민 4(232), 석수열 2(81), 원희문 7(341), 이희순 3(276), 정월균 2(80), 전태환 100(1,600)
- ▶ 28기 권승영 1(43), 권양철 4(151), 박용섭 4(245), 유정일 2(71), 윤석찬 2(177)
- ▶ 29기 김강식 2(281), 김태영 4(102), 박성훈 2(189), 박태용 2(168), 이상일 2(224), 정해균 2(10), 최인섭 2(148), 현대식 2(186), 황재식 2(18)
- ▶ 30기 김광석 4(74), 김홍빈 6(45), 남진모 2(91), 이용학 2(12), 이진 2(185), 임상달 2(155), 홍성범 2(73), 함민호 2(136)
- ▶ 31기 권동호 4(132), 김민식 4(162), 김영태 2(217), 김태희 2(45), 김희영 2(262), 염향수 2(172), 이재준 2(246), 이훈복 2(84), 최대집 2(82)
- ▶ 32기 권관덕 4(384), 김화웅 2(149), 사민우 2(171), 송진수 4(130), 이태현 2(60), 정영규 4(21), 주정용 2(19)
- ▶ 33기 권해욱 6(92), 권오진 2(4), 김남식 2(199), 김성근 4(216),

김현규 4(464), 남석진 2(173), 신성규 2(16), 안경일 2(270), 안준영 6(227), 이정표 3(164), 정용호 2(14), 조용화 2(53), 조재봉 2(146), 홍종원 2(63)

- ▶ 34기 김민오 4(56), 김운성 2(81), 김홍식 6(543), 류영택 4(125), 우진호 2(17), 이무이 2(440), 이재원 2(9), 임창훈 2(116), 정연민 2(16), 정용민 2(250), 정창규 2(142), 정춘황 2(92), 조수창 2(217), 홍영기 2(61)
- ▶ 35기 김경철 2(45), 김수열 2(103), 박병준 6(416), 박상우 2(103), 박상천 2(64), 박시근 2(219), 송명성 4(132), 유희승 4(26), 이문희 2(185), 이용우 4(4), 은명호 4(36), 임창규 2(143), 장춘삼 2(180), 전성광 2(74), 정병삼 2(187), 정영석 6(155), 정호준 4(166), 하중수 2(61), 한종훈 4(439)
- ▶ 36기 김도희 4(126), 김동혁 2(125), 김명규 1(68), 김현 2(164), 박광석 2(14), 박정호 2(7), 양현승 2(250), 이광희 2(186), 임중수 2(106), 장세호 2(237), 정우철 2(172), 조동근 2(253), 진연수 2(197)
- ▶ 37기 강성봉 2(203), 김양훈 6(345), 김충기 4(219), 김흥년 2(268), 강진철 2(182), 문장권 2(56), 송석봉 4(223), 송용섭 4(357), 신용철 100(1,330), 염태환 2(26), 옥원호 2(168), 이관모 2(174), 이원형 4(347), 임원철 2(189), 정우진 2(106), 정태욱 6(186), 최정호 2(74), 함성규 2(139)
- ▶ 38기 강민 2(47), 김대현 2(50), 모을하 2(267), 문정민 2(152), 문현성 2(265), 서성걸 2(109), 이경식 2(213), 위재익 4(145), 정한욱 2(244), 함기훈 2(120)
- ▶ 39기 권웅 4(88), 김의진 2(161), 김인경 2(119), 김지훈 4(157), 박철근 2(155), 송창현 4(183), 심웅운 2(124), 양운차 2(102), 이대화 2(247), 이용철 2(143), 장동준 4(121), 정대겸 2(62), 최현철 2(308)
- ▶ 40기 구자윤 4(242), 김백린 6(250), 김영우 6(352), 김우형 4(78),

김종욱 2(75), 김형수 2(211), 남태근 2(70), 박상규 2(88), 박진하 2(127), 송석준 2(172), 유형선 2(118), 이호연 10(868), 이훈석 2(94), 주영우 2(43), 최창국 2(130), 하성남 5(61)

- ▶ 41기 권영철 2(101), 김석진 10(418), 박한지 2(221), 방형욱 2(111), 손종득 2(129), 임성은 4(189), 전종상 10(377), 정기재 2(221), 최민규 4(181), 최지능 2(244), 홍학현 6(88)
- ▶ 42기 강구한 2(52), 강재서 2(139), 강정희 2(188), 공광석 2(94), 김동우 2(162), 김동진 2(131), 김용민 2(98), 박용준 6(136), 박호찬 2(188), 손병현 2(206), 윤광일 2(44), 윤희철 2(182), 이기욱 2(129), 이성호 2(63), 이승운 2(188), 이용학 3(191), 정만기 2(181)
- ▶ 43기 김인중 2(272), 노창래 2(79), 박희영 2(95), 배동직 3(241), 백두산 4(306), 염태섭 2(80), 이남영 2(99), 이도훈 2(163), 이용희 4(293), 이호선 2(118), 최진호 4(155), 허광석 2(127)
- ▶ 44기 김대는 2(139), 김승돈 4(66), 권용혁 4(100), 서동준 2(174), 안민환 2(52), 염태천 2(127), 오승우 6(145), 이민재 2(166), 이영민 2(179), 이희성 4(207), 최재균 2(106), 황재혁 2(65)
- ▶ 45기 권기호 2(169), 김동우 2(177), 김승수 4(177), 박영일 2(172), 박지훈 2(120), 신유철 2(182), 이안진 2(117), 이진희 4(198), 정재현 2(173), 정진우 2(174), 채희용 2(152), 최중수 2(175), 황승제 1(159)
- ▶ 46기 강승웅 4(326), 권지민 2(48), 김대영 2(75), 김명철 2(161), 김정렬 2(161), 김정호 2(278), 김정훈 4(33), 김진용 2(195), 박수만 2(67), 백인정 2(161), 송원상 4(270), 오기리 2(159), 이상운 2(161), 이신화 6(435), 이수원 2(164), 이진철 2(152), 정종택 6(485), 조광연 2(99), 조수빈 2(123), 차승우 2(123), 표상열 2(161), 한영인 2(161), 홍한표 2(152)

▶ 47기~59기 기부현황은 [www.kaayf.or.kr](http://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2024년도 학교발전기금 학교지원사업 현황

| 구분                     | 사업명       | 사업비(원)      | 비고   |
|------------------------|-----------|-------------|--|
| 장학/교육 증진사업 (2억원)       | 생도해외견학지원  | 143,171,000 | 4학년생도  |
|                        | 동기유발장학금   | 15,000,000  | 학업우수, 목표달성, 명예교양생도                           |
|                        | 학과활동장려금   | 15,000,000  | 학과별 현장학습 지원                                  |
|                        | 외국사관학교유학  | 15,925,000  | 프랑스 육사등 생도유학 추진                              |
|                        | 학술경연생도지원  | 3,000,000   | 학과관련 학술경연(전국대회)                              |
|                        | 교수국외연수지원  | 8,000,000   | 차비연수 교수지원                                    |
| 학교대의홍보 생도모집홍보 (1.35억원) | SNS광고지원   | 60,000,000  | EBS영상제작, 유튜브 영상제작                            |
|                        | 고교/대학입시홍보 | 56,000,000  | 홍보용품, 출장경비, 권역별 홍보비                          |
|                        | 예비생도교육    | 9,000,000   | 예비생도 학교소집교육비                                 |
|                        | 기타사업      | 10,500,000  | 학교카렌다(450만원), 자문위원(300만원), 학교발전공로자 포상(300만원) |
| 생도활동 지원사업 (3.614만원)    | 생도체력증진    | 8,341,000   | 요가매트(2007개), 임벤드(770개)                       |
|                        | 생도역량강화    | 7,000,000   | 軍경연, 풋살드론경연 참가지원                             |
|                        | 대학교류활동    | 20,800,000  | 충성제 초청대학교류경연대회 개최                            |
|                        | 계         | 371,737,000 |  |

## 학교발전기금 명예의 전당 개장

2024년 8월 2일 육군3사관학교 신축 학교본부 건물 2층 아너홀에 학교발전기금 명예의 전당이 새롭게 단장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재단 이사장(이창호) 주관으로 이사진과 학교장(이용환 소장) 및 학교 주요직위자 그리고 학교발전 우수 기부자 및 단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학교발전기금 명예의 전당은 1억원 5천만원, 1천만원 이상 기부자는 동판으로 기부자 명패를 부착하고 약 1천명의 100만원 이상 기부자들은 모니터 화면에 디지털 명패로 게시하였다. 학교발전기금 명예의 전당은 학교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견학장소이자 학교사랑실천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



**발전기금 참여 안내**

**입금계좌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 정보수정 희망시에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054) 330-3180, 3182

